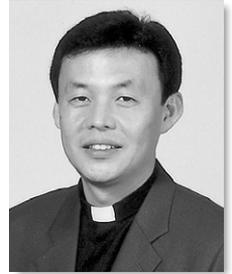


주일의말씀

쾌활한 금도(襟度)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시노드 사무국장



어느 주일에 미사 봉헌 부탁을 받고 성당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공교롭게 개신교 교회가 성당 옆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서는 담임목사로 보이는 분이 주일예배에 참례하는 신자들을 일일이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건네는 인사마다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주일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보이지만, 그때 속으로 ‘과연 나는 주일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에게 그런 인사를 드린 적 있었단가? 아니, 과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단가?’ 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란 참으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특징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 특징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대답만큼 가장 적절한 대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로 ‘감사하는 생활’이야말로 우리들 신자들의 삶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의 보람이며 자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성당에 와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천번 만번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던 사람들은 곧 그 자비를 망각해버립니다. 신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느님께서 주신 큰 은총이며 자비이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의 가족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하지만, 사실 우리가 감사에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느 저명한 국어학자가 쓰던 표현 중에 ‘쾌활한 금도(襟度)’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남을 잘 받아들이 수 있는 마음의 넓은 도량을 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 속에서 타인에 대한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좁은 마음은 한순간의 그것밖에 볼 수 없어 곧 망각해버립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말씀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나? 루카7,18

2열왕 5,14-17 2티모 2,8-13 루카17,11-19.

4. 김보록 신부의 부임과 성영애회

문화홍보실

아 직 지역별로 교구가 생기기 전 조선 땅 전체가 하나의 대목구였을 때,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을 맡아 돌보던 신부님은 김보록 아길로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이 경상도에 대해 쓴 사목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써어 있습니다.

“경상도의 신자들은 대체로 믿음과 신앙심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교사를 접해본 적이 별로 없는 이들은 우리 성교회의 진리에 대해 매우 무지한 편입니다. 그러나 예비자들은 제법 많습니다. …… [이들의] 무지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실제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도의 중심지에, 말하자면 대구에 선교사를 한명 배치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신자들은 자기들이 버림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신자들이 조언이나 권고가 필요할 때에도 의논할 대상이 없으니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아쉬워하는 교우들을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할 때마다 신부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짐작이 가는 글귀입니다. 조선대목구의 주교였던 백블랑 주교님은 김보록 신부님의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1885년 신부님을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 지역의 담당사제로 임명합니다. 이 지역에 처음으로 주임신부님이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부님을

모시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 오던 교우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신부님이 부임하시던 1885년에는 온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었는데, 길거리에 주검이 널려 있어도 치우는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첫 사업으로 기근 때문에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모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영애회라는 이름의 이 시설은 경상도 지역에 처음으로 생긴 고아원이었습니다.

“성영애”는 거룩한 아기, 곧 아기 예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불쌍한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신부님은 알아보신 것입니다.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곧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25,40).”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대구 지역의 신자들은 박해와 고생으로 움츠러들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러 우리 동네에 오신 신부님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신부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대구의 첫 본당신부님이었던 김보록 신부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마음에 신앙의 불꽃을 피워 주십시오.

감사함 줄 알아야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28주일

입당성가

56 목자를 따라서

화답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26 하느님 자비하시니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파견성가

29 주 예수 따르기로

영성의 향기

:: 평화는 내 마음에서부터

이 시대의 영성가 헨리 나웬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들 속에서 평화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전쟁, 폭력, 불의 등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폭력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느님과 평화를 이룰 때 우리는 평화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 안에 평화를 추구하는 일은 지구상에 평화를 건설하는 위대한 일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 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현대인들은 고요 속에 머물며 혼자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함이나 상처, 증오 등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자신의 약한 모습과 대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과 평화로운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는 내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빠서 잠시도 홀로 있지 못했던 자신과 고요히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교구 사목국 권가타리나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행복의 유산



미국 역사에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가문이 있다. 에드워즈 가(家)는 20세기 후반까지 14명의 학장, 100여 명의 교수, 100여 명의 변호사, 30명의 판사, 60명의 의사, 그리고 60여 명의 저술가를 배출했다. 반면에 주크 가(家)는 300여 명의 극빈자, 60여 명의 도둑, 130여 명의 범법자를 배출 했으며, 단 20명만이 직업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 10명은 교도소에서 받았다. 이것은 앞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나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 재산이나 지위를 물려주면 내 자손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신앙이 아닐까? 사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행복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 스스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을 물려주겠는가?

- 옮겨온 글입니다 -

† 사제서품식 †



고 영 일 (프란치스군)

일시: 10월 16일(토) 10:00

장소: 지산성당

• 첫미사: 10월 17일(주일) 10:30, 지산성당

성모당 봉헌 기념 전대사 미사

• 일시: 10.13(수) 11:00, 성모당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10.17(일)은 故 이창호(안드레아)신부 2주기입니다.

★ 모임 / 행사 ★

100주년 기념 대성당 설계공모 작품설명회

• 일시: 10.14(목) 11:00, 범어성당
※ 설계 공모를 통해 지명된 5개 업체의 100주년 기념 대성당의 작품과 종합계획(Master Plan)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석바랍니다.

생명평화미사

• 일시: 10.18(일) 19:00, 태전성당

대건 자율형 사립고 대리구별 입학 설명회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입시전략)

• 1대리구: 10.23(토) 14:00 계산주교좌성당
• 2대리구: 11.6(토) 14:00 범어성당
• 3대리구: 10.30(토) 14:00 월성성당
• 대상: 중학생 및 학부모

제2회 성경암송발표대회

(2011년 100주년 기념 축제 예선)

• 일시: 11.20(토), 21(일) 13:00~17:00
•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 문의: 성서사도직 담당 250-3082

뿌에리칸뜨레스 합창단 모집

• 대상: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 문의: 대구가톨릭음악원 255-4847

★ 성소 / 파정 ★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10.17(주일) 14:00
• 문의: 대구 청원소 010-5517-8833

울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 일시: 10.17(일) 14:00, 가톨릭여성교육관
• 문의: 010-9510-1131

나의 길 찾기

• 일시: 10.23(토) 15:00~24(일) 16:00
• 장소: 예수성심수녀회(대구)
• 회비: 1만원(성경, 미사준비)
• 문의: 010-9056-9005

성체조배일일대피정(010-5493-1819)

• 일시: 10.25(월) 10:00~17:00
• 강사: 정구한레오나르도신부(예수회)
• 장소: 가톨릭교육원 대강당
• 주관: 대구대학교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성령세미나(2박3일)

• 일시: 10.29(금)~31(일)
• 장소: 고령 월막피정의집
• 신청비: 12만원
• 문의: 성령쇄신봉사회 551-9111
<http://www.dgcr.or.kr/>

★ 모집 / 교육 ★

영남대학교의료원 가톨릭원목실

머리감기기 자원봉사자 모집

• 시간: 월/목 13:30~16:00
• 문의: 620-4486/010-4519-4486

가톨릭문화관 내 사무실 임대(1층 8평)

• 문의: 사무장 011-9579-7382

2011년 백학어린이집 원아모집

2011년에 귀염둥이를 위한 입학설명회를 합니다.

• 일시: 10.19(화) 10:30
• 장소: 백학어린이집 강당(256-6862)

제6기 대구대학교 가톨릭 어머니학교 개설

• 일시: 10.21(목) 10:00~15:10, 매주 목(5주간)
• 장소: 교구청 별관1층 대회의합실
• 대상: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면 누구나
• 문의 및 신청: 743-7010, 선착순42명

선교, 나도 잘할 수 있다!

• 일시: 10.23(토) 10:30~16:30
• 장소: 계산문화관 3층 선교대학
• 지도: 이관석 신부
• 선착순: 50명 무료 신청
• 문의: 가두선교단 781-6100

푸른평화예술치료연구소 무료상담

• 일시: 매주 수요일(*전화예약)

ORPT 부모교육 마음편 개강

• 일시: 11.1(일)~12.20(8회기)
• 주관: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연구소
• 문의: 794-6022/010-3513-2225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IVY리그 펜실베이니아 대학 제휴 외국협력대학 유학시 학점인정 이수후 공립학교 영어전문강사 응시가능
• 전화: 526-0121(<http://tesol.cu.ac.kr>)

가톨릭선종장례봉사자교육(청통수련원)

천주교전통장례예절/선종봉사자임무(40명)
• 일시: 10.23(토)~24(일) 1박2일, 참가비5만원
• 문의: 대가대평교원 526-3413-5

★ 안내 ★

10월 가나강좌(1인당2만원, 당일접수)

• 일시: 10.17(일) 09:30~18:30
• 장소: 가톨릭의료원 의대 마리아관
• 문의: 641-5678/010-8853-7458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1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10월 11일(월) 오전11시	신평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1일(월) 오전 11시30분	2대리구청-범어성당	포항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10월 11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1일(월) 오전11시	3대리구청-월성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0월 12일(화) 오후2시	성모당
			해외선교 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4일(목) 오후2시	성모당

대구 큰사랑요양병원

▶ 신경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상주
▶ 한의사 진료 ▶ 중풍, 말기암, 재활치료
입원상담 ☎ 951-9119
경대교에서 대구공교방향 100m
병원장 김지현 의사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 통하면 어느 곳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범어 램브란트 치과

원장 김대호 (마지아)
범어네거리 삼성증권 옆 남부외과 4층
Tel. 754-2804
www.ilovelamplant.com
월·수·금 오후 9시까지 야간진료

결혼상담

27년 전통의 성가정을위한 한빛의정
성심결혼
558-3003, 644-4007
비산네거리(서부 초등학교 옆)
류영실(마리아) · 임(논나)

아가다 요양센터

공동생활기정, 주야간, 단기보호
방문요양, 복지용품판매 및 대여
☎ 795-4242 / 815-2700
• 정성껏 보살펴드리겠습니다.
고 팔홍(안드레아) · 박성자(아가다)

한신주택

신축 및 주택수리
지붕갈라강판 판별공사
지붕 우레탄폼 방수
냉동창고 보온단열
053) 555-5432
백일주(마태오) 011-529-7501

보석 전문점 미석

특허청 등록업소 0252134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3번 출구
임종화(바실리오)
423-6336, 011-809-3003

긍정에너지가 넘치는

상인행복을심는 치과병원
상인 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
롯데리아 건물 5층
T.633-7504/634-7504
원장: 강원일(안드레아), 권광, 구선주